

# kt의 힘... 5G에 3.2조 투입 하고도 '1조 클럽'

작년 매출 24조, 전년비 3.8% ↑  
투자 등 비용늘어 영업익 8.8% ↓  
무선사업 매출 0.2% 증가한 6.9조

KT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 이후 첫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미디어·콘텐츠 사업 호조에 영업 이익 1조 클럽 수성은 했지만, 대규모 5G 투자에 출혈 경쟁으로 비용이 증가한 탓에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다. KT는 기존 무선과 미디어 사업의 서비스 차별화와 기업 간 거래(B2B),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윤경근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6일 진행된 2019년도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5G 사업은 시장 상황, 단말, B2B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다"며 "수익성을 지키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요금 중심의 마케팅 경쟁을 지양하면서 5G가 새로운 수익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지난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기준 매출 24조3420억원, 영업이익 1조1510억원을 기록했다



종로구 광화문KT사옥.

/뉴스시스

다고 6일 밝혔다. 5G 이동통신을 비롯한 유무선 통신사업과 미디어사업 성장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네트워크 투자와 마케팅 등 비용이 늘면서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KT가 미디어 사업을 강화하는 이유는 매년 매출이 감소하거나 정체된 유무선 사업과 달리 매분기 성장을 이어가는 '신성장동력'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무선사업 매출은 6조9707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0.2% 소폭 증가했고, 유선사업 매출은 같은 기간 1.0% 감소한

4조6971억원을 기록했다. 고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5G 가입자 증가는 전체 매출 소폭 성장에 영향을 끼쳤지만, 마케팅 비용과 5G 전국망 구축 등 네트워크 투자에 투입된 설비투자비(CAPEX)가 전체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연간 설비투자(CAPEX) 집행액은 5G 기지국 등 네트워크 투자가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65% 증가한 3조2568억원을 기록했다. 부문 별로 살펴보면 가입자 망에 2조1987억원, 기간망에 4080억원, 기업통신 3665억원, 기타 2937억원

이다. KT의 지난해 연간 마케팅비는 총 2조7382억원으로 전년 2조3121억원보다 18.4% 늘었다.

반면, 미디어·콘텐츠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13.5% 증가한 2조7400억원을 기록했다. 인터넷TV(IPTV) '올레TV'의 전체 가입자는 지난해 연간 50만명 순증해 835만명을 기록했으며, 부가 서비스 매출도 늘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지니뮤직 가입자 증가, KTH T커머스 사업 성장 등 그룹사 성장이 지속되며 관련 매출도 전년 대비 23.1% 증가했다.

특히 KT의 신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즌'은 2주 만에 1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윤경근 CFO는 "미디어 플랫폼의 개인화를 지향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시즌은 고객들의 개인화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어 국내외 OTT 등 외부 업체들과의 제휴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올해도 근본적 체질 향상을 위해 5G 커버리지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2월 현재 5G 기지국수는 개통 기준 7만1000여개를 넘어서며 전체

전국 85개 시·군·구·동 단위까지 서비스 되고 있으며, 올해는 인빌딩 커버리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5G SA(단독 규격) 서비스도 개시해 5G의 초고용량과 초저지연을 강화해 5G 스트리밍 게임, 실감형 미디어, 기업 간 거래(B2B) 품질을 높일 것이라는 전략이다. 올해 설비 투자비 전망치는 3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KT는 올해 연말까지 5G 가입자 비중은 25%~30%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KT는 오는 3월 주주총회를 통해 구현모 차기 CEO 회장 후보의 선임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경영 방향성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경근 CFO는 "지난해 KT는 최고의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5G·기가인터넷 등 차세대 유무선 통신과 미디어 핵심 사업에서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효율적 투자와 비용 집행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KT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5G와 AI 기반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소형부터 럭셔리까지... 대세로 떠오른 SUV

### 제네시스 'G80'

'우아함·날렵함' 투박함 없는 외관  
동급 최고수준 성능... 소비자 인기

한국지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카플레이·안드로이드 오토 기능  
1995만원부터... 소비자 부담 최소화

### 폭스바겐코리아 '투아렉'

10년 만에 3세대 완전변경 모델



제네시스 GV80 주행사진



한국지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주행모습.



폭스바겐코리아 3세대 신형 투아렉.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연초부터 국내 자동차 시장에 다양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내놓으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GLC', 'GLC 쿠페' 부분변경 모델을 새해 첫 신차로 내놓은 데 이어 제네시스 'GV80',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등 연초에만 3종의 신차가 출시됐다. 이어 폭스바겐코리아와 랜드로버는 2월 시작과 함께 신형 모델 출시를 알렸다.

특히 올해 자동차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소형 SUV의 경우 다양한 첨단 기능을 탑재해 '깡통차'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질적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대형 SUV는 럭셔리 감성과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 ◆국내 완성차 프리미엄부터 준중형까지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GV80으로 스타트를 끊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SUV GV80은 루크 동커볼케 부사장, 이상엽 전무 등 베테랑 출신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담당했기 때문에 출시 전부터 디자인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실제로 제네시스만의 고급스러움이 담겼고, SUV임에도 우아함과 날렵함을 지녔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현재 구현할 수 있는 최고 수

이프스타일을 반영해 RS(릴리 스포츠), 액티브, 프리미어 등 세 가지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보였다. RS는 레이싱카와 같은 날렵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스포티한 느낌을 담아냈다.

특히 기존 준중형 SUV에서 볼 수 없는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추후 적용) 기능을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등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탑재했다. 진화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첨단 안전·편의 사양을 갖췄음에도 1995만원으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 ◆수입차 프리미엄 시장 공략

수입차 업체들은 플래그십 모델을 잇따라 출시하며 대형 SUV 시장 공략에 고삐를 죄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6일 대형 프리미엄 SUV 투아렉 신차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 10년 만에 선보이는 3세대 완전변경 모델이다.

3세대 투아렉은 정제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개선된 성능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첨단 안전·편의 사양을 갖췄다. 3세대 투아렉은 기존 모델보다 차체를 키워 공간 활용성을 강화했다. 전장과 전폭은 각각 4880mm, 1985mm로 이전 모델과 비교해 79mm, 45mm씩 늘어났으며, 전고는 1700mm(에어서스펜션 적용 시 1670mm)로 9mm 낮아져 역동적인 비율을 갖췄다. 적재공간은 기본 810L에 2열 좌석을 접으면 최대 1800L까지 늘어난다. 엔진은 2가지를 적용했다. 3.0 l V 6 디젤엔진을 탑재한 3.0 TDI 모델은 최고출력 286마력, 최대토크 61.2kg·m의 힘을 내며 최고속도는 235km/h다.

가격은 3.0 TDI 프리미엄 8890만원, 프레스티지 9690만원, R-라인 1억9000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 대기업-中企 초봉 격차 더 커졌다

대기업 3958만원, 중기 2834만원

올해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은 평균 3958만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봉 차이는 더 벌어졌다.

6일 인크루트와 알바몬이 올해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 831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예상초임 연봉을 주관식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338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3233만원)보다 149만원(4.6%p) 인상된 수준이다.

기업규모별로 대기업 △3958만원(전년 3576만원) △중견기업 3356만원(전년 3377만원) △중소기업 2834만원(전

년 2747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중견기업 초봉만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특히 대기업 초봉 상승폭이 눈에 띈다. 올해 대기업에 입사하는 신입사원은 전년 대비 10.7%포인트 더 높은 연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신입 초봉은 전체 평균보다는 576만원(17.0%), 중소기업 신입사원에 비하면 무려 1124만원(39.7%) 높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지난해 829만원에서 올해 1124만원으로 더 벌어졌다.

올해 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을 실수령액(세후 기준)으로 보면, 월평균 250만 원을 받을 전망이다. 대기업은 289만원, 중견기업은 249만원, 중소기업은 212만원이 예상된다. /한용수 기자 hys@

## 직장인 5명 중 2명, 수입보다 지출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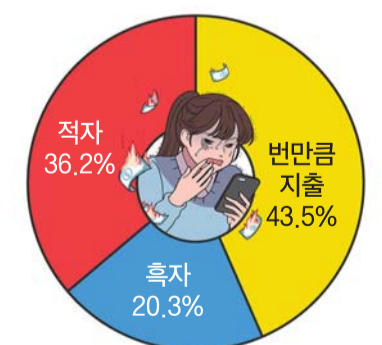
1987명 조사... 흑자 20.3% 그쳐

직장인 5명 중 2명은 지난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는 최근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1987명을 대상으로 '2019년 소득-지출 결산'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직장인 43.5%는 "딱 번만 큼 썼다"고 답했고, "소득보다 더 써 적자다"는 응답은 36.2%였다. "지출보다 소득이 더 높아 흑자"라는 응답은 20.3%에 그쳤다. 지난해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응답은 기혼자(42.3%)가 미혼자(31.8%)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이상(42.9%)이 20대(19.6%)보다 많았다. 또 자녀가 있는 직장인(44.4%)이 자녀가 없는 직장인(31.8%)보다, 여성(40.1%)이 남성(32.2%)보다 수

### 직장인 36.2% '지난해 적자'

※직장인 1987명 설문조사 결과, 자료제공: 잡코리아 x 알바몬



JOBKOREA x albamon

입 대비 지출 적자가 많았다. 적자를 낸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는 '의료비, 경조사비 등 예측하거나 아낄 수 없는 지출 발생'(24.3%)이 가장 많이 꼽혔고, '물가인상'(18.3%), '휴직, 퇴사 후 이직까지의 공백기 등 소득 공백'(15.1%) 등 순이었다. /한용수 기자